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내면 · 외부세계 공심 · 공생 · 공체

▲질문자: 여기 앉아서 마음으로 집에도 가 볼 수 있고, 미국에도 가 볼 수 있고, 우주에도 가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집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회상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쓸 수 있지만 저희들이 안 가 본 미국이나 우주를 어떻게 하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세히 보고 쓸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스님: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하시라고 이끌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의 선장과 현재 내가 통해야 됩니다. 통해야 볼 수 있고, 할 수 있고, 가고 올이 없이 가고 올 수 있고, 보는 사이 없이 볼 수 있고, 듣는 사이 없이 들을 수 있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상대방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응할 수 있다 이 சொ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는 얘기죠. 심안으로 봐야 하고 들어야 하고, 즉 말하자면 가고 올이 없이 가고 올 줄 알아야 된다. 아는 사이 없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기둥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심안의 기둥은 하늘과 진리가 상통이 돼 있고 세상과 통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잡지 않는다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감각하죠. 감각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반쪽으로 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100%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하고, 잡고 넘어가야 하고, 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이 도리를 알기 위해서 너를 믿고 너를 깨달아라. 네 뿌리를 믿지 않는다면 네 나무에서 꽃이 필 수도 없거니와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제 나무에서 무르익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가 없다고 하신 겁니다. 자기로부터 이익을 갖지 못하니까 공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공생이면서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식화하고 돌아가는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다 그러하다는 겁니다.

내가 공한 줄 알고, 겸손하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력을 기르라는 거지, 괜히 왔다 갔다 하고 이론으로 캐고 이러러러 뭉그러 여기 이렇게 읊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전부 타의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다니면서 보아도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자의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제 뿌리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타의에서 이름이나 형상으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심안의 줄을 잡는다면, 그 줄이 바로 반야줄입니다. 반야줄을 잡지 못한다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감각하게 못 볼 뿐만 아니라,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을 갖다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흙탕물이 나와서 이거를 어떡하면 좋겠냐 하고 방방 방 뛰어도 맑은 물로 대처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면세계를 믿고 한구밖 밖에는 없다. 생사가 나고 드는 구렁이 한구밖 밖에 없으니 그 구렁이에서 모두가 나오는 거니까 거기다 다시 입력을 해라. 그런 다면 앞서의 입력된 것이 없어지면서 현실에 새로이 정리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질문자: 우주 다른 별에는 현재 지구보다 과학 문명이 상당히 발전된 곳이 많다고 하시고, 그 중에서 우주선을 3일 만에 만들어서 순식간에 타고 와서 다시 없애 버리고 필요하면 다시 만들고 그런

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기술을 현재 지구에다가 도입을 할 수 없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스님: 그것도 우리가 모두 마음의 진화를 시킬 수 있는 마음의 활용을 할 수 있다면, 마음으로 온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두 정신 세계는 무의미하게 생각해 버리고, 지금 현실의 물질 세계로만 올라가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편하게 살 수도 있건만 아주 복잡다단하게, 사람이 뛰고 온통 같 기갈이 짙어지고, 병이 들어 죽게 되고 삶의 보람이 없이 낙오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도리를 알면 신선하게 살다가 우리가 흰 옷 벗어서 빨갛듯이 새 옷을 아주 세련되게 입고서 등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도리를 알면 여기 앉아서도 다 행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다른 게 문

것은 다스릴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의 의식들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 다스려야 다스려지는 거지, 내가 지금 현재 보이는 육안 또는 이론적인 말로 아무리 발버둥쳐도 그것은 통신이 되질 않습니다. 다스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의 의식이 전자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입력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 거를 마음의 선장한테다가 일임하면은 마음의 선장만이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선장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 이렇다면, 위로는 마음의 선장을 모시고, 아래로는 모든 생명들의 의식을 다 거느리고 사는 집합소며, 심부름꾼이며 관리인이다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두가 공생인데 여러분의 몸에서 하나라도 생명이 나와서 따로 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때에 따라서 오는 것대로 바깥에서 용도에 따라서 딱치는 대로, 안에서 일어나는 대로 그대로 대처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 마음의 자리를 완전히 잡고 내가 심안의 소리를 듣고, 심안의 소리가 뜻으로 나오고 모든 게 활용이 됐을 때 그때에 경을 보시면 '아, 이것은 이거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고 유발이 되면은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이거는 뭐 천부당 만부당해요.

느니라.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모두 배라면 배안에 지금 중생들이 잔뜩 타고 있습니다. 세포 하나 하나에도 중생들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의 선장이 잘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아니 되죠. 그 중생들이 이리 울 저리 울, 이것도 나서고 저것도 나서고, 팔죽 속에 팔죽 방울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일어나면은 그것을 일어나게 되는 것도 바로 거기다 하고 팔겨야 잔잔하게 다스리죠. 그래서 배는 달을 곳에 달는다 이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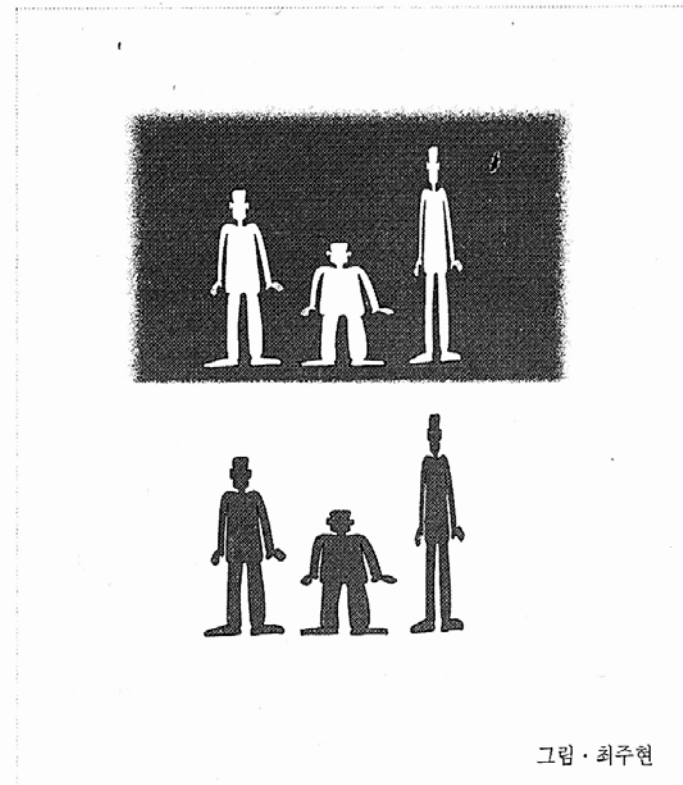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시장에 가더라도 내게 없는 것만 사 오랬지, 누가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탐을 내라고 했느냐는 거와 똑같습니다.

▲질문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병신이듯이 병신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답한 것은, 그런 것을 그 안에서 다 하는 거다 하고 믿고서 그냥 꿩개치고 매달리고 하면서 또 답답한 것은 나머지 반을 알지 못해서 답답한데, 지금 제가 공부하는 대로 나가면 언젠가는 되는 것인지 그런 게 답답해서요.

▲스님: 왜 걱정을 합니까? 용광로에서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습니다. 먼저 기초부터 다지고 주춧돌을 놓고 아래층부터 잘 지어놓아야 위층이 저절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나중 생각 마시고 우선에 내 선장한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체험해 보시도록, 지켜볼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진자로 믿고 해 보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질문자: 그리고 스님께서 소켓트 애기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로 마음이 맞아서 스파크 하는 순간에 한마음이 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제 주인공과 스님을 돌이키게 생각을 하지만 자주 스님을 찾으려고 관찰 때 마음이, 주인공을

찾으면 되는데 왜 스님을 찾느냐 이 두 가지가 조금 혼동이 됩니다. ▲스님: 하하 거저요. 일체 만물만생이다 때에 따라서 찾는 것이지 아무 때나 찾는 게 아닙니다. 부부기간도 그렇고 부모 자식 기간도 그렇고, 가족이 때에 따라서 내가 꼭 만나야겠다 이래야 만나지고, 이 말을 꼭 해야겠다 해야 하는 거지, 아무 말 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냥 찾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꼭 스님이 이거는 들어야 되겠다 할 때에, 마음은 채가 없으니까 영에다 영을 넣으면 영 하나가 돼버리고, 그것도 영이죠. 그러니 하는 사이 없이 하고 진실로 현재에 나오

한마음 속에서 나온 것 한마음 속에서 해결해야

명 시대가 아니라 정신 세계의 문명 시대가 우리는 아쉬운 겁니다. 지금 시급한 문제입니다. 정신 세계가 좀 더 발전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과학을 연구하는 데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연구 재료를 자야할 수 있는 내 자력이 있어야 연구를 해내지, 천만금을 갖다 준대도 연구를 못해낸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연구를 해내는 사람은 심안이 조금이라도 튀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전생에서부터, 이 세상에서 배운 게 아니라 전생으로부터 배워 온 자력의 능력의 양금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 제가 오늘 나온 것은 공부하면서 너무 답답해서, 스님 말씀대로 주인공이 하는 것을 정말 믿는데도 너무 힘들고, 저를 믿어야 하는데 왜 또 와야 되는 가 하는 생각을 해서입니다.

▲스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자기가 공부하면서 체험한 것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전자에는 그냥 설법을 했는데 너무 무의미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오늘서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뭐이 그렇게 힘 듬니까? 썩은 자기 뿌리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썩은 줄기가 '아이고' 힘들어한다면 뿌리는 뭐라고 할까요? 뿌리로부터 성립이 되고, 썩은 뿌리가 썩지 않아야 상심하고 푸르게 살 수 있는 데요. 그러니까 능력을 가진 뿌리를 놔두고 잎파리 하나기 바람에 날리면 '아이고, 이거 바람에 또 날리는구나!' 하고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잎파리가 많듯이 몸 안에 생명체들이 많습니다. 그 몸 안에 생명체들이 제각각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선장 뿌리한테다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 자동적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 거지, 이론으로 말로 아무리 공론을 해도 그

까? 따로 살지 않죠? 여러분의 몸 속에서 다 같이 살죠? 그러니 공생이죠?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어떤 거 먹을 때, 어떤 거 볼 때, 어떤 거 할 때, 어떤 거 들을 때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나 혼자만이 산다고 하며, 나 혼자만이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생이고, 그러니까 주인공이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합해서 다스리면서 돌아가는 주인공 자체가 바로 여러분의 뿌리라고 일컬어 이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만 믿고 거기다가 매기면은 다 거기서 다스려서 해 줄텐데, 왜 그렇게 관리인 심부름꾼이 간섭을 합니까? 서로가 공생이고 공용이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 즉 말하자면은 소임을 맡아서 제각각 하는 겁니다. 같이 말입니다. 나사가 하나가 빠져도 기계가 돌아가지 않듯이, 지금 공용을 하고 있는데 나 혼자 산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혼자 발버둥치고 애를 쓸 요가 없애야 이 소리예요. 한마음 속에서 나온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해야 하고

일체제불 한 찰나에 나고 들어

일일하러 이거예요. 답답한 거는 그 자리에서 안나오면 겁이니까? 시원한 거는 그 자리에서 안나오니까? 그러니 시원한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답답한 것도 그 자리에서 나온 거니까 답답하지 않게 하는 것도 아니라야 하고 내면지면 될 거를 왜 그렇게 불꽃고늘어지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경을 보지 말라는 것도 다 나를 발견한 뒤 봐야 이 소립니다. 그 래야 흔들리지를 않지, 요게 틀리고 요게 옳고 틀리다 보면 이 공부하는 천년 백년이 가도 못합니다. 이런 글을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론으로 말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서 의논해서 되는 것도

가빠른 안목을 보듯 고요한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수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18면으로 계속

A5신 288쪽
값 6,000원
에디션

